

한국여성의 자아개념의 요인구조와 성차

이 종 구[†] 이 해 경 김 명 소
대구대 심리학과 한국사이버대 교육학부 호서대 경상학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여성의 자아개념의 요인구조와, 요인구조에서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집단면접(FGD)을 통해 30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1차 조사에서 528명을 대상으로 307문항의 중요도 평정결과를 통해 193문항이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남녀 1494명이 참여하였고, 이들중 여성 527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요인들은 2개의 물리적 자아 요인(경제력, 신체적 매력), 4개의 개인의 정신적 자아 요인(직업 성취, 지능 및 학업성취, 정서조절능력 및 여유, 무능 및 사회적 위축), 8개의 관계적 자아 요인(신용 및 친절, 정적 가족관계, 정적 부모역할, 원만한 대인관계, 가족의 불신 및 갈등, 자녀로서의 역할, 배우자의 유능성 및 매력, 자녀의 학업성취) 및 2개의 집단적 자아 요인(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친구/이웃의존) 들이다. 16개 요인 중 8개 요인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은 집단적 자아가, 남성은 개인의 정신적 자아가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자아개념, 성차, 물리적 자아요인, 정신적 자아 요인, 관계적 자아 요인, 집단적 자아요인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74-HM1016).

† 교신저자 : 이종구,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gooya@taegu.ac.kr

남녀의 성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열쇠는 자아해석의 양식이다(Cross et al., 1997, 2000). Cross 등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변인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서구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이 증시되며 행동하는 독립적 존재로서 타자와 분리되고 독립적인 자기해석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같은 북미문화권에 서도 특정 인종집단(예, Hispanics, Asian American, African American) 이나 여성들은 관계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자기개념보다는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 자기개념을 가질 수 있다. 최상진(1993)은 한국인의 자기이해는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하며, 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정체감이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내에서도 남녀간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예, 정진경, 1987; Eagly & Steffan, 1984) 남성은 기능적이고 도구적 특성(예, 독립적이다)을 갖는 반면에 여성은 관계지향적이고 친화적 특성(예, 배려심이 있다)을 갖는다. 이런 남녀 특성의 차이는 사회적 역할이 남자는 가정외적인 일을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며, 여성은 가정내적인 일을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Eagly & Steffan, 1984). 한국내에서 남녀가 맡은 사회적 역할 특성에서 볼 때, 남성은 독립적 자아를 추구할 수 있지만, 여성은 관계적 자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한국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남성과 다르며, 여성의 경우 '관계성'이 중요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박아청, 2000). 한편으로 이와 반대로 한국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자아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국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들 또한 "한국인"이라는 집단 멤버십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한국 여성들은 어떻게 자신을 정의할까? 한국 여성들은 어떤 자아개념과 구조를 갖고 있을까? 자아개념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존재적 기반의 하나이고, 개인이 자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자존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관적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의 자아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여성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아개념 척도개발에 앞서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의 자아개념의 요인구조를 탐색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이런 요인구조에서 남녀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아, 자아개념의 정의 및 유형

자아(self), 자아개념은 하나의 가설적 구성개념이다. 즉, 자아개념, 자존감, 자아수용과 같은 용어를 말하는 것은 매우 쉽게, 자주 사용되므로 실제로 그들이 물리적으로 실재하고 실체적인 것처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인간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가설적 구성개념이다(송인섭, 1998).

자아개념은 자아(self), 자신(ego), 자아지식(self-knowledge), 자아정체(self-identity),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자아상(self-image), 자아존중감(self-esteem), 현상적 자아(phenomenal self) 등과 다양한

맥락에서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아 혹은 자아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Cross 등(1997, 2000)은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심에서 자아를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독립적 자아해석이란, 타인과의 분리를 중요시하며, 이 자아의 주된 구성요소는 한 개인의 내부적 특성(예를들어, 개인의 능력, 가치, 동기)이나 태도가 된다. 관계적 자아해석이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타인을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독립적 자아해석자들과 달리 이들의 특징은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사고와 감정, 친밀한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그들을 돕는 기술이나 행동, 타인의 성공과 기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존심이 높아지고 자기 고양의 기회를 갖는다.

Sedikides와 Brewer(2000)는 자아 개념이 3가지 자아표상(self representation) - 개인적 자아(individual self),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집합적 자아(collective self) - 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개인적 자아는 개인들의 독특한 특성으로 정의되고 해석되는 자아로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이 고양된다. 관계적 자아는 이자간 관계에서 정의되거나 해석되는 자아정의를 말한다. 이는 유의미한 이자관계에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파트너, 역할관계, 혹은 개인적 지위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자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 연인관계, 의사-환자관계에 관한 표상을 말한다. 집합적 자아란 집단 대 집단의 관계에서 자아를 정의하는 것이며, 이자관계나 개인 대 개인의 역할관계에서 자아를 정의하는 관계적 자아와 차이가 있다. 집합적 자아는 내-외집단 비교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내집단을 고양하거나 혹은 방어하는 동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Sedikides와 Brewer

(2000)가 말하는 '개인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의 개념은 Cross 등(1997, 2000)의 '독립적인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과 각각 유사한 개념이다.

자아개념의 다차원적 위계구조

이종구, 이해경, 이은정과 김명소(2002)는 자아와 유관개념들에 대한 Baumeister(1997)의 리뷰, 자아의 이론적 진보 과정과 다양한 관점에서 자아를 기술한 이만갑(2002)의 연구, 자아의 다차원성을 강조한 March, Byrne와 Shavelson(1992)과 Buss(2001), 판단의 인지과정 및 정보통합과정에 대한 Hogarth(1987)의 연구를 종합하여 '주체로서의 자아(I)'가 '객체로서의 자아(me)'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 그림 1의 가설적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1에서는 우선 대상으로서의 나(me)를 자아개념(self-concept)으로 본다. 자아개념의 표상은 여러 형식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표상 형식은 스키마(schema)와 원형(prototype)이다(민경환, 1994). 만약 자아개념이 스키마 구조로 표상되어 있다면 자아개념은 내용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스키마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약간의 위계성을 띤 구조일 수 있다. 원형의 형태로 표상되어 있다면 다차원을 가정할 수 있는 여러 속성들을 지닌 자아개념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개념의 표상 형식을 스키마로 보건 원형이나 다른 표상의 형태로 보건 자아개념은 다차원의 속성들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 특정 시점 및 특정 상황에서 소수의 속성이 선택되고 이들의 속성값들이 통합된 자아평가의 결과 또는 평가 결과로서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일차원적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개념은 엄격하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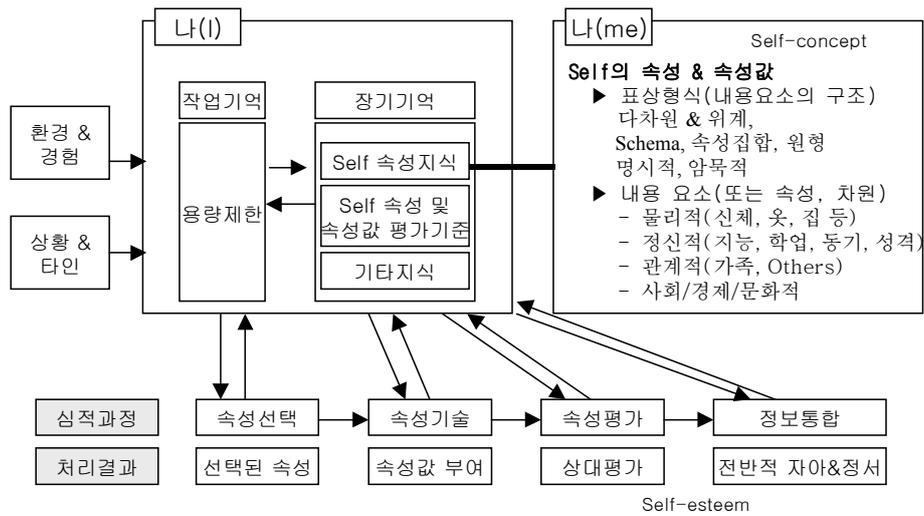


그림 1. 나(I)가 me를 판단하는 과정

위계성(또는 느슨한 위계구조)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자아개념의 표상구조가 위계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Shavelson, Hubner와 Stanton (1976)은 여러 속성 차원들이 위계적으로 연결된 다차원 위계구조 형태의 자아개념을 가정하였다. March, Byrne 및 Shavelson(1992)의 연구에서 위계적 요인구조를 가정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Shavelson 등(1976)의 모형과 함께 이들의 모형에서 다소 수정을 가한 모형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 결과, 위계구조의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 연구집단이 아동 후기, 청소년기, 성인후기의 학생집단이어서 요인의 내용에 학업적 특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요인이 배제되어 있어 직관적으로도 성인의 자아개념의 구조와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인 여성의 자아개념을 반영해줄 만한 요인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March 등(1992)의 자아개념 모형을 가지고 성인대상의 자아개념의 구조와 구성요소를 파악하려면 내용적 측면(자아개념의 차원 또

는 구성요소 또는 속성)이 많이 보완되어야 하지만, 이 모형을 자아개념의 구조에 관한 하나의 가설로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방법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제는 자아의 표상형식에 대한 규정과 내용요소(속성의 구성문제이다. 표상형식의 경우 일차원성보다는 다차원성에 대한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계적일 것이냐의 여부는 통계적인 측면과 내용적 측면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아개념의 문화적 차이 및 성차

Sedikides와 Brewer(2000)는 개인적, 관계적, 집단적 자아, 3가지 자아표상(self representation)을 구분하였다. 개인적 자아(individual self)는 개인들의 독특한 특성으로 정의되고 해석되는 자아로서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심리적으로 자존감을 고양하거나 방어하도록 동기화된다.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는 유의미한 이자관계에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파트너, 역할관계, 혹은 개인적 지위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자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 연인관계, 의사-환자관계에 관한 표상을 말한다. 둘째, 집합적 자아(collective self)란 집단멤버십의 용어로 정의되는 자아(Brewer & Gardner, 1996)로써, 집단 대 집단의 관계에서 자아를 정의하는 것이며, 이는 이자관계나 개인 대 개인의 역할관계에서 자아를 정의하는 관계적 자아와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집합적 자아는 내-외집단 비교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내집단을 고양하거나 혹은 방어하는 동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Sedikides와 Brewer(2000)가 말하는 '개인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의 개념은 Cross 등(1997, 2000)의 '독립적인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과 각각 유사한 개념이다. Cross 등(2000)은 자아를 두 가지 해석양식, 즉 동서양의 문화에 따라 '독립적인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으로 구분하였다. 독립적인 자아해석은 서구적 개인주의의 문화적 특징으로서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며 독립적인 존재로서 타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말한다.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를 중시하며, 이들의 자아해석에 있어 주된 구성요소는 한 개인의 내부적 특성(예를 들어, 개인의 능력, 가치, 동기)이나 태도이며 자아를 정의하는데 있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타인과의 관계성은 덜 중요하게 된다. 관계적 자아해석은 같은 북미문화권 중에서도 특정 인종 집단(예, Hispanics, Asian American, African American)이나 여성 집단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들 집단에게서는 상호의존적인 자아개념이 두드러진다. Cross 등(2000)은 독립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가 양극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가 상호 독립적,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연구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5)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독립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는 양극차원이 아니라, 상호 독립된 이원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Cross 등(1997, 2000)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변인으로 자아해석에서의 차이를 두었고 이 차이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5).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 가치, 동기 등이 강조되는 '독립적인 자기해석' 경향이 강하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독립적인 자아해석이 주된 구성요소인 반면에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타인과의 관계성은 자아를 정의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들의 목표 또한 자율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선택이나, 권리, 목표들을 자기 자신의 내부적 힘으로 실현시키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자존심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한 사람의 독특하고 특별한 남과 구별되는 사고와 행동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존심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Cross 등(1977, 2000)의 연구 결과에서 같은 북미 문화권 중에서도 동양계를 비롯한 특정 인종 집단이나 여성들은 관계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관계적 자아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타인을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들의 중요목표는 관계적 자아 정의의 발전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사고와 감정, 친밀한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그들을 돕는 기술과 행동, 그리고 타인의 성공과 기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존심이 높아지고 자기 고양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있다. 이런 관계적 자아해석은 특히 남녀 성차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Cross et al., 1977, 2000).

Cross 등(1977, 2000)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여성의 경우 또한 관계적 특성이 여성의 자존심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 여성의 정체감 형성은 남성과 다르며(이경혜, 1977), 여성의 경우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연구(박아청, 2000)들이 또한 Cross 등(2000)의 지적과 일관된 것이다. 한편 성고정관념의 내용에서 볼 때 남성의 경우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자아해석이 남성의 자존감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자아개념 척도개발의 동향

국내외 자아개념에 관한 척도는 학자, 이론적 관점에 따라 측정내용이 매우 다르다.

외국의 경우 테네시 성인용 자아개념 척도(Tennessee Self-Concept)(Fitts & Warren, 1996)는 7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별 5문항씩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ss 등(2000)은 11문항의 관계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al) 척도를 제작한 바 있다. 한편 자아표상양식을 3가지 개인적 자아, 관계적 자아, 집단적 자아로 구분한 Sedikides와 Brewer(2000)의 경우는 이들 표상양식을 척도로 개발하진 않았다.

국내의 경우 이훈진(1997)이 개발한 자아개념 척도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도덕, 가족, 사회, 학업 및 일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석만(1996)의 다면적 자아개념검사는 1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자기를 하위차원을 측정한다.

물질적 자기는 외모, 신체적 매력, 신체적 건강 및 체력, 그리고 가족의 재산 및 경제적 상태 3개를 포함하며, 정신적 자기는 성격 및 성격적 매력, 지적능력,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학업성적, 지식수준 인생관 및 가치관의 확립 정도의 7개를 포함하며, 사회적 자기는 교육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신분 및 지위의 4개를 포함한다.

연구 1 : 문항 수집 및 문항 선정

연구 1은 자아개념 척도의 문항개발과 선별에 관한 연구이다. 문항개발과 선별과정에서는 이론화와 실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 2가지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첫 번째 주안점은 문항개발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자아개념 연구들에서 구분한 4개 요인에 기반을 두고 질문문항을 만들고 이들 토대로 자아 관련 내용들을 추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접 결과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문장화하고 이들 문항에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더하여 사람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문항만을 선별하는 작업이다. 연구 1에서 문항 수집을 위해서는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라고 함)을, 중요문항 선별을 위해서는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 법

문항개발

시초 문항 pool은 기존척도의 문항과 FGI에서 나온 내용을 구(phrase) 단위로 나누고 문장화 한 문항들이다. 기존 척도의 문항은 6개 하위요인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별 5문항씩으로 이루어진 이훈진(1997)의 자기개념척도 30문항과 6개 하위 요인(신체, 도덕, 개인, 가족, 사회, 학업 및 일)으로 이루어진 테네시 성인용 자아개념 척도(Tennessee Self-Concept) 76문항이다(Fitts & Warren, 1996). 35명(남 14명, 여 21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FGI)에서 도출된 내용을 구 단위로 분절한 결과, 1500개의 구가 추출되었다. 이들 모두를 문장화 한 후 연구자들의 판단으로 공통된 내용과 미리 가정된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중요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외한 307문항을 시초 문항 pool로 삼았다.

질문지 구성과 조사

307 문항의 질문지는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만들어 실시하였다. 20대 일부는 대학생 집단에 실시하였고 나머지 20대 일부와 30대 이상은 초, 중, 고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구시내 초, 중, 고 1개교씩을 선정하고 학교당 4개 학급씩을 선정하여 학급내 학생의 반에게는 어머니용 질문지를, 나머지 반에게는 아버지용 질문지를 봉하여 배포한 후 2일 후에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자

FGI에 참여한 사람은 총 35명이며 이중 남자는 14명, 여자는 2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명, 30대가 14명, 40대가 15명, 50대 이상이 5명이었으며 기혼자가 32명, 미혼자가 3명이었다. 307 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정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남자가 205명(38.83%), 여자가 323명(61.17%)으로 여자가

표 1. 성별 및 연령별 조사대상자 중요도 평정

	남	여	전체
10대	28(13.66)	19(5.88)	47(8.90)
20대	33(16.10)	16(4.95)	49(9.28)
30대	45(21.95)	110(34.06)	155(29.36)
40대	89(43.41)	174(53.87)	263(49.81)
50대이상	10(4.88)	4(1.24)	14(2.65)
전체	205(38.83)	323(61.17)	528(100.0)

압도적으로 더 많았는데 이는 질문지를 동수로 배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회수율이 낮은 탓에 기인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63명(49.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29.36%)였는데 이는 초, 중, 고생 학부모의 연령이 주로 30, 40대였기 때문이다.

결 과

FGI의 내용과 기존 문항을 합하여 의미상 유사한 문항들끼리 범주화 한 결과, 크게 4개의 범주로 집단화되었다. 4개 범주별 하위 요인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307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정결과 7점 척도상의 평균인 4점 이상인 문항들과 각 요인별로 5개 미만인 문항은 점수에 관계없이 모두 보유하는 방식으로 총 193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보다 포괄적으로 자아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예비연구의 성격을 띤 연구 I에서 요인을 통째로 버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모든 요인을 척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193개 문항이 연구 II에 이용되었다.

표 2. 범주별 하위 요인의 내용

대범주 내용	중 범 주	소 범 주
물리적 자아	신체 물질	체형, 키, 전반적 매력, 건강, 건강관리 재산/경제력, 물건/집, 직업, 여가, 여유, 자기활동
개인(정신적)자아	도덕적 정신적(성격) 정신적(능력/성취)	외향성, 정, 낙관성, 상황판단, 자기과시, 이념 능력, 지식, 교육, 리더십 기술
관계적 자아	가족(자녀) 가족(배우자) 가족(형제, 부모) 사회적 관계	자녀능력, 자녀교육, 자녀와의 관계, 자녀 건강, 자녀에 대한 관심, 자녀 외모 유능성, 신체적, 성적 매력 부모와의 관계, 형제애 타인배려, 사교성, 전반적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 도움정도
집단적 자아		집안 배경, 모임성격, 종교, 사회활동

연구 II: 자아개념의 요인구조 확인

방 법

연구 II의 목적은 한국여성의 자아개념이 다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구조의 하위요소(또는 요인)를 파악하고 각 하위 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자

조사에는 총 1494명(남 726명, 여 768명)이 참여하였다(표 3 참조). 요인구조를 확인하는데는 여성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요인별 성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남자의 자료를 이용하

표 3. 성별 및 연령별 조사대상자

연령	전체 조사대상자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20대	146(20.11)	190(24.74)	336(22.49)	8(1.61)	24(4.55)	32(3.13)
30대	164(22.59)	165(21.48)	329(22.02)	112(22.54)	136(25.81)	248(24.22)
40대	164(22.59)	165(21.48)	329(22.02)	150(30.18)	159(30.17)	309(30.18)
50대	164(22.59)	164(21.35)	328(21.95)	151(30.38)	145(27.51)	296(28.91)
60대	88(12.12)	84(10.94)	172(11.51)	76(15.29)	63(11.95)	139(13.57)
전체	726(48.59)	768(51.41)	1494(100.0)	497(100.0)	527(100.0)	1024(100.0)

였다. 193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이 누락되거나 ‘해당사항없음’에 응답한 241명의 자료를 제외한 여성 527명의 자료(표 3 참조)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193 문항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 요인분석 결과에서 너무 많은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포함되어 요인의 해석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이들 문항들만을 대상으로 별개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93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한 시초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 당 3개 문항이 포함되고 사전에 가정된 요인에 부합됨과 동시에 해석이 가능한 요인의 수는 11개였다. 11개의 요인을 지정한 후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method)으로 요인을 추출한 후 Varimax 회전을 시킨 결과에서 요인계수가 낮은 39개의 문항을

제외시켰다. 1단계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큰 요인 순서대로 앞의 5개 요인은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요인의 의미가 복합적이어서 이들 5개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 별로 별도의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요인분석의 기초요인 해석에서 설명변량 퍼센트와 최종해(final solution)의 해석가능성을 참고로 했을 때 2개 요인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5개 요인 각각이 2개 요인으로 분할되었다. 2단계의 요인분석 과정에서 추출된 총 요인 수는 16개였다(표 4 참조). 이들 16개의 요인들을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집단화하면 본 연구에서 사전에 가정된 4개 요인(물리적, 정신적, 관계적, 집단적 자아)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16개 요인들은 2개의 물리적 자아 요인(경제력, 신체적 매력), 4개의 개인의 정신적 자아 요인(직업 성취, 지능 및 학업성취, 정서조절능력 및 여유, 무능 및 사회적 위축), 8개의 관계적 자아 요인(신용 및 친절, 정적 가족관계, 정적 부모 역할, 원만한 대인관계, 가족의 불신 및 갈등, 자녀로서의 역할, 배우자의 유능성 및 매력, 자녀

표 4.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계수	b^2	문 항	요인계수	b^2
요인 1: 직업 성취 ($\alpha=0.86$)			요인 2: 지능 및 학업성취 ($\alpha=0.87$)		
a183내가 하는일 자랑스러움	.65	.48	a161공부할 때 이해 빠름	.67	.48
a151나는 능력있는 사람	.64	.50	a175학창시절에 공부 잘 했음	.67	.48
a186평소에 자기개발 힘씀	.63	.47	a153나는 수학을 잘 함	.66	.46
a185하는일 인정받는 일임	.61	.46	a162학벌이 좋다	.61	.49
a191내 인생목표가 뚜렷	.59	.41	a179머리가 좋음	.59	.42
a193전문성있는 일 하고 있음	.57	.35	a154내가 영리하다고 생각	.56	.40
a123원하면 전문직업 가능	.57	.38	a181고학력 소지자임	.49	.39
a187뛰든지 배우고자함	.55	.39	a174영어를 잘함	.47	.31
a182리더십이 있음	.54	.40	a138나는 교양이 풍부	.45	.32
			a170경제상식이 풍부함	.44	.34
			a124출신학교에 자부심 느낌	.39	.29

표 4. 계속

문 항	요인계수	b ²	문 항	요인계수	b ²
요인 3: 신용 및 친절 (a=0.87)			요인 4: 정서조절능력 및 여유 (a=0.88)		
a22나는 정직한 사람	.64	.44	a42나 자신을 잘 돌봄	.61	.40
a33남을 배려할 줄 압	.62	.45	a49좌절 잘 안함	.61	.39
a39바른 행동 한다고 생각	.58	.51	a52감정 조절 잘 함	.57	.35
a32나는 예의 바르다	.58	.39	a167나 자신에게 당당함	.51	.32
a35모든 일 긍정적으로 봄	.56	.44	a51마음의 여유 있음	.49	.30
a28공중 도덕 잘 지키	.53	.33	a166어려워도 일어설 의지 있음	.45	.27
a15정미 많은 사람	.52	.31	a20효과적인 방식으로 일함	.44	.26
a115나는 친절한 사람	.52	.33	a48성실한 사람	.44	.35
a24나의 행동에 만족	.51	.45	a25나의 문제 손쉽게 해결	.43	.25
a19신용 있는 사람	.51	.33	a79나는 자제력 있음	.42	.34
a16온화한 성격	.48	.24	a46의리가 있는 사람	.39	.28
a91책임감이 강함	.45	.38			
a4원만한 성격	.38	.21			
요인 5: 정적 가족관계 (a=0.87)			요인 6: 정적 부모역할 (a=0.83)		
a96힘들 때 도와주는 가족 있음	.63	.45	a85아이들을 잘 챙김	.61	.46
a67집안식구들과 잘 지냄	.62	.45	a80자녀 교육에 투자	.56	.31
a97나의 가족을 이해함	.60	.44	a78자녀는 좋은대학 입학	.51	.30
a63가족관계에 만족	.58	.37	a1130아이들 학교성적에 관심	.49	.30
a99형제애가 돈독함	.57	.36	a83아버지 역할 잘 수행	.49	.32
a100가족은 나의 분신	.57	.42	a94가정일에 시간들임	.46	.23
a87나의 가족은 항상 나를 도움	.54	.42	a82가장 친밀한 사람은 자녀	.46	.32
a64집안 화목케하는 능력 있음	.53	.34	a98자녀 진로에 관심 많음	.46	.40
a90가족에게 관심가지고 있음	.50	.38	a77자랑할만한 자녀 있음	.45	.33
a129가정생활에 충실함	.46	.37	a84자녀 나의 요구 잘 따름	.43	.36
a68힘들 때 가족에게 의지	.45	.22	a112자녀들을 바르게 키움	.40	.30
a75나보다 가족이 우선	.43	.26	a53내겐 자식이 쟁 중요	.29	.12
요인 7: 원만한 대인관계 (a=0.90)			요인 8: 가족의 불신 및 갈등 (a=0.86)		
a125다른사람과 잘 어울림	.64	.43	a58가족한테 사랑받지 못함	.68	.51
a126누구하고든 쉽게 친해짐	.62	.43	a62가족들이 나를 신뢰 안 함	.68	.50
a132대인관계가 넓다	.60	.52	a50옳은 일 잘 안 행함	.60	.40
a136친구들에게 인기 있음	.60	.48	a43미움 받을 성격소유자	.59	.38
a147사람들과 융화 잘 함	.59	.44	a93가정에서 무시당함	.57	.41
a40나는 쾌활한 사람	.57	.34	a95식구들 나를 신통치 않게 여김	.57	.44
a145나는 친근한 느낌 준다	.57	.44	a111하는일마다 인정 못 받음	.57	.49
a116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함	.55	.30	a13 좋지 않은 사람	.48	.27
a134유머감각 있음	.54	.42	a66나의 가족과 자주다툼	.47	.28
a73나는 포용력 있음	.54	.29			
a130나는 다정다감	.51	.28	요인 9: 친구/이웃의존 (a=0.58)		
a103분위기 잘 살림	.51	.38	a137어려울 때 친구에게 의지	.58	.34
a36나는 적극적	.48	.28	a128어려울 때 이웃에 의지	.55	.31
a60남을 잘 돕는다	.46	.25	a144잘 어울리는 비공식 모임 많음	.45	.32
a146나를 도와주는 사람 많다	.42	.31	a101친구필요시 뛰어나감	.31	.16
a143홍금 털어놓는 친구 많음	.40	.30			
a135만나는 누구에게나 좋게	.39	.21			

표 4. 계속

문항	요인계수	b ²	문항	요인계수	b ²
요인 10: 무능 및 사회적위축 (a=0.85)			요인 11: 경제력 (a=0.81)		
a164다른 사람에게 내세울게 없음	.70	.50	a188우리집 재산이 많음	.55	.51
a165다른 사람에게 열등감	.66	.50	a189우리집 보여주고 싶음	.51	.44
a163제대로 할 줄 아는데 없음	.65	.47	a190사업할 만한 자금 있음	.51	.49
a171남들 앞에서 말 잘 못함	.54	.37	a18펜찮은 집 가짐	.47	.39
a155하는 일에 능숙 못 한편	.50	.36	a117또래에 비해 사회적 지위 높음	.45	.49
a122낮선사람과 대화어려움	.45	.23	a9좋은차 가지고 있음	.41	.36
a119다른사람과 쉽게 못 어울림	.45	.36	a10우리집은 펜찮은 동네	.38	.29
a156공부에 소질 없음	.43	.26	요인 12: 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a=0.91)		
a159일하는 방법 잘 모름	.43	.32	a150같은 종교사람 만나면 친밀	.83	.73
a172경제력이 부족	.42	.20	a168종교가 나를 지켜줌	.83	.71
a152나는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41	.30	a149종교모임가면 마음이 편함	.83	.73
a139살림살이가 초라	.36	.24	a140종교단체에 일체감 느낌	.79	.66
요인 13: 배우자의 유능성 및 매력 (a=0.85)			요인 14: 신체적 매력 (a=0.81)		
a133배우자가 자랑스럽다	.59	.57	a11체격이 날씬	.77	.64
a110배우자 좋은 직업 가짐	.50	.50	a12체중 많이 나감(R)	.70	.54
a178배우자가 유능함	.49	.58	a56체중을 잘 관리	.65	.52
a176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냄	.46	.43	a8옷이 잘 맞는 체격	.56	.36
a106매력적인 배우자	.46	.43	a31세련된 용모 지녔음	.42	.47
a108배우자 학벌 좋음	.43	.43	a38외모에 자신 있음	.40	.43
a180배우자 외모 뛰어남	.42	.43	a47나의 외모에 만족함	.35	.41
a104배우자가 제일 중요	.37	.37	요인 15: 자녀의 학업성취 (a=0.60)		
요인 16: 자녀로서의 역할 (a=0.77)			요인 15: 자녀의 학업성취 (a=0.60)		
a72부모님과 친밀함	.46	.39	a81자녀들은 수학잘 함	.40	.37
a69어른들을 잘 모심	.40	.41	a30나의 자녀들은 공부 잘함	.37	.30
a70나는 좋은딸(아들)임	.39	.43	a61자녀들 영어 잘 함	.34	.24
a65부모님들에게 잘 함	.36	.41			

표 5. 요인별 신뢰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요 인	문항수	<i>a</i>	평균	표준편차
물리적 자아				
신체적 매력	7	0.81	3.37	0.75
경제력	7	0.81	3.19	0.71
개인 정신적 자아				
직업 성취	9	0.86	3.53	0.74
지능 및 학업성취	11	0.87	3.40	0.68
정서조절능력 및 여유	11	0.82	4.18	0.54
무능 및 사회적 위축	12	0.85	3.07	0.64
관계적 자아				
신용 및 친절	13	0.87	4.36	0.53
원만한 대인관계	17	0.90	4.02	0.56
정적 가족관계	12	0.87	4.34	0.57
정적 부모역할	12	0.83	4.23	0.55
가족의 불신 및 갈등	9	0.86	2.55	0.74
배우자의 유능성 및 매력	8	0.85	3.80	0.74
자녀의 학업성취	3	0.60	3.83	0.73
자녀로서의 역할	4	0.77	3.99	0.77
집단적 자아				
친구/이웃의존	4	0.58	3.51	0.68
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5	0.91	3.54	1.14

의 학업성취) 및 2개의 집단적 자아 요인(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친구 및 이웃의존) 들이다. 단, 이들 요인 중에서 물리적 자아 요인과 개인의 정신적 자아요인들을 개인적 자아로 묶으면 Sedikides와 Brewer(2000)가 구분한 3개의 자아표상(개인적, 관계적, 집합적)과 일관된다

요인별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신뢰도 분석에 포함된 문항은 요인계수가 .30이상인 문항들이다. 표 5에서 '자녀의 학업성취 ($a=.60$)' 요인과 '친구 및 이웃의존 ($a=.58$)' 요인의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문항-총점 상관이 모두 .30이상

이어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가 개별 문항의 비밀관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요인별 적은 문항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4개 요인의 신뢰도는 .77에서 .91사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6은 16개 요인간 상관행렬표이다. 표 6에서 4개의 자아(물리, 정신, 관계, 집단)개의 요인간 상관이 타 요인간의 상관에 비해 특별히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단, 각 요인과 타 요인간의 상관의 평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조절 및 여유' 요인과 '원만한 대인관계' 요인이 다른 요인과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적

표 6

KCS I

표 7. 자아개념 요인의 성별평균 및 t-검증 결과

	남	여	전체	t	p
물리적 자아					
신체적 매력	3.57(.63)	3.37(.75)	3.46(.70)	4.55	.0000
경제력	3.30(.65)	3.19(.71)	3.24(.68)	2.58	.0100
개인 정신적 자아					
직업 성취	3.84(.67)	3.53(.74)	3.68(.72)	7.10	.0000
지능 및 학업성취	3.68(.64)	3.40(.68)	3.53(.67)	6.71	.0000
정서조절능력 및 여유	4.22(.55)	4.14(.53)	4.18(.54)	2.46	.0140
무능 및 사회적위축	2.97(.63)	3.07(.64)	3.03(.64)	-2.48	.0131
관계적 자아					
신용 및 친절	4.35(.53)	4.36(.53)	4.35(.53)	- .30	.7684
원만한 대인관계	4.02(.57)	4.02(.56)	4.02(.57)	- .03	.9762
정적 가족관계	4.30(.55)	4.34(.57)	4.32(.56)	-1.24	.2145
정적 부모역할	4.12(.55)	4.23(.55)	4.18(.55)	-2.96	.0032
가족의 불신 및 갈등	2.56(.71)	2.55(.74)	2.55(.73)	.10	.9229
배우자의 유능성 및 매력	3.88(.63)	3.80(.74)	3.84(.69)	1.91	.0568
자녀의 학업성취	3.85(.71)	3.83(.73)	3.84(.72)	.44	.6569
자녀로서의 역할	4.00(.75)	3.99(.77)	4.00(.76)	.35	.7245
집단적 자아					
친구/이웃의존	3.58(.70)	3.51(.68)	3.55(.69)	1.65	.0987
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3.26(1.10)	3.54(1.14)	3.40(1.13)	-3.98	.0001

자아의 두 요인(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친구 및 이웃 의존)과 ‘무능 및 사회적 위축’ 요인, 그리고 ‘신체적 매력’ 요인과 타 요인간의 상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7은 자아개념의 16개 요인별 성차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성차를 보인 요인은 모두 8개로 나타났다. 표 8에서 신체적 매력, 경제력, 직업성취, 지능 및 학업성취, 정서조절 능력 및 여유 요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무능 및 사회적 위축, 정적 부모 역할, 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요인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중 집단적 자아요인의 하나인 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여성의 자아해석이 더 의존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또 남성들이 직업성취 등의 개인적 자아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 또한 남성의 자아해석이 더 독립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표 8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16개의 자아개념 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계수로 성별 및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점수인데 10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결과 한 문항(8번, 나 자신에 대해 좀

표 8. 자아존중감과 요인간 상관

자아개념 요인	자아존중감		
	남자	여자	전체
물리적 자아			
F14신체적 매력	.16*	.18*	.18*
F11경제력	.15*	.22*	.19*
개인 정신적 자아			
F1 직업 성취	.36*	.40*	.39*
F2지능 및 학업성취	.23*	.29*	.28*
F4정서조절능력 및 여유	.41*	.36*	.39*
F10무능 및 사회적위축	-.35*	-.34*	-.35*
관계적 자아			
F3신용 및 친절	.40*	.27*	.33*
F7원만한 대인관계	.29*	.33*	.31*
F5정적 가족관계	.33*	.24*	.27*
F6정적 부모역할	.31*	.25*	.26*
F9가족의 불신 및 갈등	-.31*	-.26*	-.28*
F13배우자의 유능성 및 매력	.27*	.33*	.31*
F15자녀의 학업성취	.18*	.17*	.18*
F16자녀로서의 역할	.25*	.26*	.25*
집단적 자아			
F8친구 이웃의존	.03	.04	.04
F12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00	.08	.03

* $p < .001$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의 요인계수와 문항 총점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낮아 이 문항을 제외하였다. 나머지 9문항에 대한 Cronbach의 신뢰도 계수 α 는 .82로 나타났다.

표 8에서 개인의 정신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에 속한 요인들은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물리적 자아에 속한 요인들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만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적 자아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전반적인 자아 평가에는 개인의 정신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 요인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개념의 하위 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성차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점은 신용 및 친절 요인(남 $r=.40$, 여 $r=.27$)과 정적 가족관계 요인에서(남 $r=.33$, 여 $r=.24$)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논 의

한국 여성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에 앞서 자아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요인별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개발 과정에서 FGI의 내용과 기존 문항을 합하여 의미상 유사한 문항들끼리 범주화 한 결과, 크게 4개의 범주(물리적, 개인의 정신적 자아, 관계적 및 집단적 자아)로 집단화되었다. 이들 4개의 범주는 이종구 등(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범주와 일치한다. 그러나 범주화 과정이 경험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의미 유사성을 근거로 하위 요인들을 범주화하였으나 개념적 구분이 애매한 요인들이 다수 나타나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의 정신적 특성 중 대인관계에 필요한 특성들을 개인의 정신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 중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경험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FGI를 통해 다수의 문항을 수집하였으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집되지 않았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과 관련

된 문항수집이 다소 덜 이루어져 이로 인해 집단적 자아에 관한 요인과 문항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2단계로 이루어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154문항에서 1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16개의 요인들을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집단화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전에 가정된 4개 요인(물리적, 정신적, 관계적, 집단적 자아)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매력과 경제력의 2개 요인은 물리적 자아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 정서조절능력 및 여유, 무능 및 사회적 위축의 4개 요인은 개인의 정신적 자아요인으로, 신용 및 친절, 정적 가족관계, 정적 부모역할, 원만한 대인관계, 가족의 불신 및 갈등, 자녀로서의 역할, 배우자의 유능성 및 매력 자녀의 학업성취의 8개의 요인은 관계적 자아요인으로, 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친구 및 이웃 의존의 2개 요인은 집단적 자아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2단계의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요인들은 비교적 해석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분석 과정이 너무 인위적이고 일반적인 2단계 요인분석과정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2차적 요인분석(secondary factor analysis)은 일차적인 요인분석 후 너무 많은 요인들이 추출되었거나 해석의 간명성(parsimony)을 위해 보다 축소된 수의 요인을 원할 때 일차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온 요인점수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이 이루어진다. 물론 직각회전의 결과는 요인점수간 상관이 영(zero)이기 때문에 일차적 요인분석은 사각회전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요인분석 후 유사요인끼리 재차 묶기 위해 2차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일차 요인분석에서 나온 요인을 다시 쪼개기 위해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2차적인 요인분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2단계 요인분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요인분석의 보편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이러한 분석 절차를 사용한 이유는 이 연구의 목적이 자아개념의 요인구조에 대한 탐색적인 확인에 있고 또 요인의 해석이 보다 명료해지는 장점이 있어 방법론적인 문제보다는 실용적인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자아개념의 16개 요인별 성차에 대한 분석 결과, 신체적 매력, 경제력, 직업성취, 지능 및 학업성취, 정서조절 능력 및 여유 요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무능 및 사회적 위축, 정적 부모 역할, 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요인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집단적 자아요인의 하나인 종교 및 종교집단 의존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남성들이 직업성취 등의 개인적 자아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여성의 자아해석이 보다 의존적이고 남성의 자아해석이 더 독립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

넷째, 자아개념 요인들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 분석 결과, 개인의 정신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에 속한 요인들은 자아존중감과 상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물리적 자아에 속한 요인들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성은 유의하지만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적 자아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전반적인 자아 평가에는 개인의 정신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 요인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개념의 하위 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성에서 성차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였으나 우선 여성의 자아개념의 요인구조 확인에 목적을 두었고 성차 비교는 부수적이어

서 여성 자료만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남녀 통합자료를 기반으로 요인구조를 추출한 후 성별비교가 뒤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자료에 대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요인구조 도출 이전에 두 자료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고 이는 여성 자아개념의 요인구조 탐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여성의 자료만으로 요인구조를 추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중 특히 본 연구의 주 목적인 자아개념의 요인구조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구조를 논하기는 어렵다. 1차와 2차적 요인분석 과정이 통합된 위계적 모형의 검증을 통해 비교적 강한 위계구조를 검증한 선행연구들(Cheng & Watkins, 2000; Marth, et al., 1992)에서와 같은 위계구조의 가능성은 본 연구의 요인분석과 요인들의 내용 범주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추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2차적 요인분석 모형의 형태)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절차가 뒤따라야 개념적인 수준이 아니라 경험적 수준에서 자아개념의 요인구조에 대해 보다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성별 요인점수상의 차이와 함께 요인구조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경험적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석만 (1996). 자아개념의 인지적 구조와 측정도구의 개발. *학생연구*, 31(1),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11-38.

민경환 (1994). Self의 세 성분: 인지, 정서 그리고 의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22-39.

박아청 (2000).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15-126.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p17-18. 학지사.

이경혜 (1997). 중년 기혼 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만갑 (2002). 자기와 자기의식. 서울: 소화.

이종구, 이해경, 이은정, 김명소 (2002). 자아에 대한 자아의 평가과정. 2002년도 추계 여성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8-85.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진경 (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권, 132-160.

조혜자 (2002). 자아 연구의 동향과 여성과 관련된 자아정체성 연구. 2002년 여성연구모임, 미발표 원고.

최상진 (1993).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적 심리학의 탐색*, 서울: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Barnlund (1975). Introduction: Psychological dimensions of the self. *Dimensions of the self*. Sage Publication.

Baumeister, R. (1997).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ition)*. NY: McGraw-Hill.

Buss, A. (2001). *Psychological dimensions of the self*. Sage Publications, Inc.

Cheng, C. H. K., & Watkins, D. (2000). Age and gender invariance of self-concept factor structure: An investigation of a newly developed Chinese self-concept instr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5), 186-193.

- Cross, S., Bacon, P., & Morris, M.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91-808.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Eagly, A. H., & Steffan, V. J. (1984). Gender Stereotypes of nationalities applied to both women and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51-462.
- Fitts, W. H., & Warren, W. L. (1996). *Tennessee self-concept scale TSCE: 2*.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Hogarth, R. M. (1987). *Judgment and choice: The psychology of decision*. New York: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March, H. W., Byrne, B. M., & Shavelson, R. J. (1992). A dimensional, hierarchical self-concept. In T. M. Brinthaupt, & R. P. Lipka(Eds.), *The self: Definitional and methodological issu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lder, CO: Westview Press.

Exploration on the Factor Structure of Self Concept among Korean women and Gender Differences

Jong goo Lee

Daegu University

HaeGyoung Lee

Korea Cyber University

Myoung-So Kim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self-concept factor structure of Korean women and examine gender differences, based upon the perceptions of self (self-control) among Korean adults. 307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lf were yielded by FGI(Focused Group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The list of 307 items were administered to 528 Korean adults to assess the importance of each item to their self-concept, and 193 item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survey. A nationwide sample of 1494 Korean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responses from 527 Korean women were submitted t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16 factors of self-concept were derived from the factor analysis; 2 physical dimensions of self(i.e., financial status, physical attraction), 4 psychological dimensions of self(i.e., occupational achievement, intelligence/academic achievement, emotional stability, incompetency/social inferiority), 8 relational dimensions of self(i.e., trust/kindness, good family relationship, good parental rol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good role as a son or daughter, attraction of spous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and 2 collective dimensions of self(i.e., religion and relatives/neighbors).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among 8 of 16 factors, in which women showed higher levels in the collective dimensions of self while men showed higher levels in the psychological dimensions of self.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self-concept, gender differences, dimensions of self